

COVID-19와 인문학교육*

COVID-19 and Education for Humanities

신현호 (Hyun-Ho Shin)**

ABSTRACT

COVID-19 has changed our daily lives and has affected the educational area, so non-face-to-face classes are generally conducted in university education, the intimacy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s is falling, and learning capacity and satisfaction are also falling.

The new normal phenomenon is occurring due to the prolonged pandemic. A prime example is the expansion of online and untouching. Christian universities and professors in their communities, who regard preaching the gospel as their mission, are contemplating the mission given to them in the increasingly untouching culture of the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will discuss the changes i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potential of the humanities due to COVID-19, and then look at the humanitie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nd then discuss the plans and attitudes that Christians should take with a sense of mission.

Through this article, I hope that the plan to overcome COVID-19 will be discussed in a substantial way and Christians who are in charge of humanities will have an active and diverse approach to vitalizing humanities education.

Key Words: COVID-19, education, humanities, mission, christian teacher

* 2021년 5월 18일 접수, 2021년 6월 21일 최종수정, 6월2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어문학부 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백석대학교 본부동, hhshin@bu.ac.kr

I. 들어가는 글

COVID-19는 인류의 위기와 재난의 서술을 새롭게 다시 쓰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COVID-19는 민족, 국적, 성별, 피부색,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세계 200여 국가와 지역에 확산되었으며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Quammen, 2020: 363-364). COVID-19로 세계 절대 다수 국가가 국가 간 뿐 아니라 자국 내 국민들 사이에서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급과 수요 예측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활동 가운데 소비수요는 압축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산업과 제조업은 모두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COVID-19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전 방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COVID-19는 인류의 경제 질서와 경제활동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세계 절대 다수 국가가 자가 격리를 경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심지어 도시봉쇄까지 해서, 경제활동 중 소비수요는 위축이 되고 대부분의 산업과 제조업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자본도 투자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이어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세계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침체는 국가 간 전략 경쟁을 대립의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미, 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국가 간 정치, 사회의 협치 프레임과 중대한 초국가적 의제설정 기제 및 국제제도의 규칙을 기초로 하는 전 세계적 협치(global governance)가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사회 및 개인의 관계는 새로운 조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개입과 자원배치 능력을 강화시키는 “신국가주의”(neonationalism)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민족주의, 인종주의, 배외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가속화 되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유 및 상호개방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사회적 교류왕래는 COVID-19 발발 이후, 엄중한 타격과 제한에 직면해 있다. 이 결과 각국은 상호 경계와 장벽을 치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http://thetomorrow.kr/archives/12093>).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4단계의 충격효과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은 “공공위생위기” “경제와 민생위기” “사회위기” 그리고 일부 국가에 나타나는 “정치위기”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현상이 주춤해지고 국가 간 경쟁, 방어, 경계 등의 체제가 확대되고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자국 우선 보호 장벽을 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질서를 위한 주도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국가 간 다양한 부문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이 전개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간 협력 체계,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계(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뿐 아니라 EU공동체조차도 각국의 이익구조에 따라 많은 새로운 도전과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빈곤인구 수는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었지만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 인구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빈곤층 인구에 적어도 5억 정도는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이 예상되며 산업화 구조에 있어 불가피하게 변혁이 일어나며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이 엄중한 경제 후퇴에 직면할 것이며 국가 간 빈부의 차가 확대될 수 있다 (Sharfuddin, 2020: 251-257). 세계 경제 질서가 대규모로 새로 짜질 수 있고, 세계화 진행의 조정 또한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신코로나 역병은 전 세계 발전의 현존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OVID-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학교도 개학을 미뤘고 학원도 한시적 휴원했다. 박물관 미술관도 휴관하고 종교 시설도 가능한 모임을 자제하고 있다. 사람들을 대면해서 판매를 하는 자영업은 손님이 끊겼고 집합 교육이 중단되어 강의를 주업으로 하는 강사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COVID-19라는 낯선 명명만큼이나 과거 일상적이지 않았던 용어들이 새롭게 일상생활에 자리하게 되었다. ‘거리두기’, ‘방역’, ‘진단키트’, ‘백신’, ‘자가 격리’, ‘폐쇄’, ‘봉쇄’, ‘확진자’, ‘음압병동’,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공의료’, ‘비대면 수업’ 등 일상의 관행이나 상식과 거리가 먼 단어들이다. 수시로 휴대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종류의 안전안내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질병관리청의 섬세한 행동요강, 예를 들면, ‘식사 전 손 씻기, 공용집게로 덜어먹기, 대화 자제 및 대화 시 마스크 착용’ 등부터 여러 지자체가 발송한 확진자 정보에 이르기 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간섭과 명령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타인 특히 확진자에 대한 관심에 적극 동참하라는 요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내가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은 타인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련번호 몇 번이라 지칭된 확진자의 행동반경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는 것은 이 사회의 같은 국민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환기시켜준다(신혜경, 2020: 40). 이처럼 COVID-19는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종식된 이후에는 COVID-19의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고착화 될 수 있다. COVID-19의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가치의 시대, 일명 ‘뉴노멀’(New Nomal)¹⁾의 시대에는 기존에 있었던 양식들이 더욱 확장되며 새로운 양식들이 출현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온라인(On-Line) 세상의 확장이다. 이미 21세기는 온라인 세상으로 접어들었고 일상화 되어가고 있지만 더욱 심하게 온라인 시스템이 확산 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도 오프라인의 규모가 축소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전 방위로 교육 콘텐츠를 흡수할 것이며 ‘온라인 커머스’

1) 뉴노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명명했던 경제, 사업 용어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 기간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시화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률 등을 새로운 표준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침체 상황을 가리켜왔다. 오늘날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며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점차 일상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n-line commerce)는 더욱 외연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http://thetomorrow.kr/archives/12093>). 둘째, 만약의 사태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려는 불안 심리 확산으로 인한 예방 대책 강구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면역력 강화에 대한 인식과 위생에 대한 개념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재기에 따른 과소비 현상 발생이다. 셋째, 언택트(untact)현상이다(김월희, 2020: 13). COVID-19 이전에도 소위 혼밥, 혼놀, 혼술 등 혼자 하는 생활을 즐기는 소위 ‘혼족’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는데, COVID-19 이후에는 적어도 오프라인 상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하지 않는 비접촉, 비대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현상들이 늘어날 것이며 세대 간 격차 또한 심화될 것이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다. 그러나 꼭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인스타 라이브나 카카오톡 라이브톡을 켜 놓고 친구와 대화하며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지리적 단절을 뛰어 넘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문화를 만들어 간다.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함께 느낄 거리는 늘어날 것이다. 기독교도 비대면을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설교 유튜버 목사의 양성에 대해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COVID-19는 온라인을 통한 복음화 방안을 연구할 기회를 교회 및 기독교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원격(remote)이다. 온라인의 시대에 비 접촉은 원격으로 완성된다. 교육에 있어 원격 변화의 가장 큰 축은 바로 원격 교육이다.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수요가 급증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원격교육 매뉴얼을 갖추기 시작했다. 원격교육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차적인 이유가 있지만 학교는 추후 원격교육을 더욱 확산하는데 대한 시험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원격이 모든 부문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심지어 원격예배가 교육현장과 예배 현장에서 오프라인보다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을지 모른다.

교육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은 단순히 오프라인 수업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 일부에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흡수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지금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일부 교과목과 교육내용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교육과정 재편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교, 강사 재배치 및 고용 축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는 고용을 줄이는 것에 따른 명분을 냉정하고 단순한 숫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찾으려하고 합리화할 것이다. 교육 노동시장의 붕괴로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교육현장에서 업적 점수를 높이기 위한 다소 정직하지 못한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학력자 인플레 현상에 따라 학교는 손쉽게 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 교, 강사를 확보할 수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예측들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들로 COVID-19가 그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 해 주고 좋은 명분이 되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교육 현장에서 진짜 팬데믹(Pandemic)현상은 COVID-19 이후에 올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는 COVID-19의 상황에 따른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환경, 산업을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COVID-19 이후 자본주의를 지탱하던 4개의 체제인 생활의 도시화, 산업의 지구화, 가치의 금융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환경의 시장화로 인한 생태 위기가 흔들리면서 문명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미래에 인류가 목표로 삼아야 할 3가지 원칙으로 사회적 방역시스템, 고용보장제, 그리고 소비가 미덕인 현대문명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잠시 멈추고 인간과 이웃과 자연이 함께 지복을 누리는 좋은 삶에 대한 성찰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재천 외, 2020: 104-125). 좋은 삶에 대한 성찰, 곧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보편적 행복에 대한 성찰은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조망은 항상 어렵다. 그럼에도 현재의 현상을 모아 점을 찍으며 그 선을 연결해 그어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인문학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서설적 연구에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COVID-19가 사회 및 교육에 미친 영향과 포스트 COVID-19에 대해 조망하고, 대학교육의 변화와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다룬 후, 기독교 관점에서 인문학을 탐색하고 기독교수 및 학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취해야 할 방안 및 태도를 모색한다.

II. COVID-19 팬데믹과 대학의 인문학 교육

1. 대학교육의 변화

21세기 들어서면서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해 모든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정체성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COVID-19 상황 이전에도 대학들은 시대 조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각종 사업과 정책을 내세우고 대학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표경쟁과 우위경쟁을 통해 각자 존립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일관성 부족과 공동 비전의 상실이 뒤를 따르게 되었지만 대학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일치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학의 과제가 일차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것인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잘

받아들이는 건실한 국민을 배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가치를 문제 삼는 비판적 지성을 형성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유용한 신기술을 창조하고 글로벌화된 기업경제에 적합한 근무기술을 학생들에게 갖추게 하는 것인가, 학생과 교수를 학문공동체내의 선후배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정보와 자격증이 거래되는 시장의 서비스 소비자와 제공자의 관계인가, 교수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이며, 의제를 설정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식의 서로 상충되는 논쟁의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 대학이 사회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이며, 그 사회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명료하게 주장할 수 없다(Readings, 1996: 2).

대학 또는 대학교육의 위기를 형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어느 정도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회의 추세를 단순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인구구조의 변동, 기술적인 혁신, 세계화의 정치 경제적인 효과, 변해가는 재원의 우선순위 등 현실세계의 압박들은 끊임없이 대학을 기존의 구조와 관행을 무력화시키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10여 년간 정보기술의 혁명은 교육과정에 대한 견해와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전통적 강의실과 캠퍼스에 기반을 둔 학습은 점차 적절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인터넷이나 기타 컴퓨터 기반의 전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학습 공동체로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COVID-19 상황은 이러한 대학교육의 상황에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여하고 각 대학들은 대처가 미흡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김월희, 2020: 15).

COVID-19는 대학교육의 전통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과거와의 연결의식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는 의미와 정체성을 지탱하여주는 사회적 원천이자 권위의 근거였고, 문화적 평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재와 과거의 이러한 단절은 대학교육에서 일관된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끌어낼 건실한 문화적 기초나 뼈대를 구축하는 견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는 뒤떨어진 것이며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대학의 전통적 기능 중의 하나는 세대 간을 중개하는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이였다. 그러나 현재 대학들은 교육의 전통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유익하며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변화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며 패턴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이제 그것을 정확히 그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현재조차도 과거처럼 낯설어지려고 한다. 대학들은 종종 만들어내는 지식이나 그 지식이 사용되는 목적에 대하여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비인간적인 ‘지식공장’(The Knowledge Factory)으로 진화하였다(Aronowitz, 2000: 32). 옛 버전을 마스터할 시간도 가지기 전에 모든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행하여지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미래충격으로 인한 방향 상실감을 완화시키며 신뢰성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있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 딜

레마 중의 하나일지 모른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이며,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 태도는 회의주의 일 것이다.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계몽주의 이래 대학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미와 진리에 관한 어떠한 절대적 주장도 점차 불신하게 되었으며, 진리의 개념은 점차 평등화되고 실용적인 것이 되었다. 진리 주장의 검증은 보편적 정당성이 기준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상황에 유용한지 여부가 되었다. 종교적 신앙의 신조나 과학적 합리주의의 가정 같은 과거 권위적인 제1원리들이 쇠퇴하고, 사회, 인종, 성별, 정치와 연계된 정체성이나 자신과 남을 위하여 구축한 여타 다른 정체성이 반영된 수많은 관점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함축하는 바는 상당하다. 모더니티의 역학이 일관된 문화적 가치의 전달자로서의 대학의 기능을 의문시하고 있다면, 진리에 대한 점증하는 회의론은 도덕적 인격과 가치를 함양하는 대학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 대학이 가치중립적인 학문을 추구할 지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학 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현실적 표준이 규격화 되었다. 대학교육의 기본 공식은 교수와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온택트 사회로의 진입으로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문학은 기존의 탈 학습적 방식의 시험대의 최전선이 되었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한다(<https://www.emotion.co.kr/magazine/15/>). 온택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SNS나 온라인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외층이 형성된다. 현 인류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라 할지라도 일방적이거나 제한적 정보만을 나누고 있다는 불안감, 혹시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 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로 사실 전체 호모 사피엔스의 표준 인류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최재천 외, 2020: 76).

COVID-19로 인해 인류는 생각의 표준이 달라지고 있다. COVID-19는 어떤 특정집단이 지식의 주도권을 잡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 COVID-19 상황은 사회통신망이나 개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정보 및 지식의 유통이 집단과 개인의 구분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근원지 파악은 힘들고, 정보 유통을 통제하는 지배적 간섭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인적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는 경계 없이 전해지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근원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나오고 수용되고 있다. 진리 주장의 검증은 보편적 정당성이 기준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상황에 유용한지 여부가 되었다. 어떠한 특정 시각도 다른 관점에 대하여 내재적인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오직 의견만 존재할 뿐, 선형적 진리란 없다. 그러므로 각자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어, 어떤 견해가 유력할지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누가 자기 견

해를 강제할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학은 특정한 관점을 배제할 분명한 주도적 패러다임도 찾을 수 없고, 전통적 가치관이 지닌 관점의 타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될 만한 의미의 공유도 없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대학은 대학교육과 사회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힘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온 세상이 내 손안의 지구촌으로 들어온 이래 맞닥뜨린 글로벌한 재난 COVID-19 상황과 현실의 대학 상황에서 인문학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수용 과정 모두가 달라지고 있다. 인문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외면할 수 없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변화 등을 고려하고 반영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학문들처럼 인문학도 고정된 불변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2. COVID-19 상황에서의 인문학 교육 탐색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역병부터 기원후 14세기 흑사병과 20세기 스페인독감에 이르기까지 전염병 팬데믹이 그러했듯이 COVID-19도 문명교류와 번성의 산물로서 발생했음에도 도리어 “사회적 해체를 야기하고 정치적 긴장을 촉발하며 당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지식을 시험”하고 있다(Harrison, 2012: 56-58). 자연 질병을 넘어 사회질병이자 국가질병이었던 전염력이 높은 역병은 방역을 위해서 동체(同體)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정치 리더십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촉구했다. 당장의 재난 극복은 결국 미래에 완성되기에 재난 리더십에 대한 모색은 역병이 진정된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갈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COVID-19 이후는 어떠할까. 창궐했던 흑사병이 진정되고 20세기 초반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이 퇴조하자, 사람과 권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한다. COVID-19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반복하면 더 큰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오랜 피로감으로 인해 일상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COVID-19는 바이러스가 매개체이지만 인간이 전파자이므로 바이러스에게 일종의 숙주 역할을 한 인간 자체가 바이러스이며 따라서 인간을 치유할 백신이 필요하다.

인간이 바이러스라면 인간을 다루는 인문학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던 인문학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영향력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특권화 하는 경향이 있기에 백신 역할과 그 효용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고실험일 따름이다. 인문학은 인간다운 이들에게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을 인간답게 하는 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내려놓지 않도록 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이 바이러스에 비유됨은 인간답지 못한 이들 탓일 수 있다. 이는 인간다움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을 인간답게 치유하는 것, 그것이 인문학의 존재 이유이자 주된 소용이다. 인문학은 인간 바이러스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되돌리는 백신이었다. 어느 특정 시대, 지역에서만 그러했던 것도 아니다. 사람이 인문을 빚어내던 시초의 순간부터 인문학은 백신으로서 널리 그리고 오래토록 활약해왔다(장문석 외, 2020: 5).

최근 인문학이 희망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어려운 시대를 건너가는 데 인문학이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도 한다(안상헌, 2012: 19). 출판계를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가 주류를 이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인문학 서적의 출간이 급격하게 늘었으며 인문학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COVID-19로 인해 현재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란 용어가 생겨날 정도이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19와 블루가 결합된 말로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19와 레드가 결합된 말로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 과부하로 ‘코로나 블루’를 넘어 분노의 감정이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재난 초기에는 자살률이 오히려 감소하지만, 실업과 폐업 등 경제적 후폭풍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는 자살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8704.html>).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안정시키며, 예방하고 치유하며 치료하는데 인문학의 역할이 강력히 요구된다. 인문 자산은 치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문학을 도구로 사람들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활동으로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글을 써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문학적 치유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문학 교육에 있어 치유의 기능을 강조하는 접근은 COVID-19로 인한 온택트 시대에 시의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문학의 역사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인간이란 종의 탄생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문학이 문자를 지식 전달로 사용한 시기부터 인문학이란 학문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종교에 의해 인간의 의미가 사장되었다가 신을 죽인 르네상스 시기부터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소 복잡하고 시각의 다양성으로 비추어 질지 모르나 결국 인간이 있어야 인문학이 있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이 생겨났다는 한 가지 통합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자연과학이 자연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생겨났고 사회과학이 인간이 만든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학문인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의 특징 속에 연구 및 교육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인간과 함께 계승되어온 사료와 역사적 자료와 사색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지식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을 해석,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문학 교육은 오래된 사료 등을 통해 어떻게 접근하여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발달은 이러한 인문학 교육 방법 자체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정보화의

가상현실은 살아있는 역사처럼 변화되고 있으며, 인간 사고에 대한 과거의 접근 방식에서 완전히 떨어져 전혀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인간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묻고 있다. 또한 언어와 같이 시간적 제약 속에서 변화하는 인문학적 요소도 시간의 한계를 넘어 단시간 내에 변화하고 사라지고 생성된다. 이러한 정보화의 변화가 인문학 교육에서 하나의 변화가 아닌 전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에 인문학은 정보화 속에 위기보다는 시험대에 오른 학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COVID-19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변화의 물결은 인문학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에게만 오는 위기의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는 정보화의 물결이 너무도 급속도로 급진전적으로 사회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창들은 학문자체에서 가지는 토론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학문의 방법도 과거처럼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문학 교육의 방향은 COVID-19로 더욱 심화된 정보화라는 인터넷 시대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과거부터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견지 해온 인문학은 이제는 바뀌는 사회의 모습의 원동력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문학을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 들이는 하나의 기회로서 인터넷 시대의 정보화 물결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방법론이다. 과거의 인문학 교육에서 사용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 었다. 즉 인간은 무엇인지? 역사는 무엇인지? 언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을 새우고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토대로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성질과 역사의 흐름과 언어의 모습을 가지고 사회라는 틀 속에 적용했고 해답을 얻기까지의 방법론적 접근은 현재의 자연과학을 이루는 합리성을 산출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인터넷의 정보화 된 현재의 생활을 대표하는 가상현실 속 존재에 대한 성찰과 역사 발전을 위한 방법과 전자 텍스트 언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어떻게 인문학을 사용하여 다가오는 인터넷 시대에 대한 해답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인문학을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접근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는 근본적인 사회적 흐름에 맞는 해답을 제시하므로 인문학을 통한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 인문학의 과제는 뉴노멀을 조직하는 인문적 실천에 급진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COVID-19로 야기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상적인 방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고 시도 중인 디지털인문학은 포스트 COVID-19 인문학 교육 및 연구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이란 정보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

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한다. 순수 인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지식의 사회적 확산을 돕는 길이고, 인문콘텐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문화산업에 응용할 방대한 인문학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일이다.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보다는 정보 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이다. 메사추세츠 대학(MIT)에서 수행하는 ‘문화의 시각화’(Visualizing Cultures)프로젝트는 ‘이미지가 이끄는 학술’(Image Driven Scholarship)을 표방하는 디지털 환경의 인문 교육 교재 개발 사업이다(<https://visualizingcultures.mit.edu/home/index.html>). 역사적 사실에 관한 그림, 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를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하고, 영상 자료의 구석구석에 담긴 지식의 모티브를 찾아 학술적인 설명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고 있다. 이 저작물은 모두 월드 와이드 웹(WWW)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MIT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문학의 산업화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COVID-19로 인한 온택트 시대에 인문학이 학문 영역과 특성에 따라 적절히 기술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인문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인문학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다.

자연과학의 진실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이해되어지고 논의되어지는 학문이고, 사회과학은 인간의 국가적 존재단위의 형성과 함께 생겨난 인간 생활에 대한 보편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성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토의의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절대적 지식이라는 개념 속에 절대 논의되어 질 수 없는 국가와 민족 종교 등의 상대성을 내포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학문이며, 다양성의 학문으로서 토론의 학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의 대상을 선정하여 다양한 논점을 통한 토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합성의 토론 학문이다. 이러한 토론 학문에서의 대면 방식의 교육 방식은 인문학 교육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단위였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양한 접근과 인식의 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수업 방식이나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되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나 민족의 역사적인 시간만큼 축적된 지식의 양은 각 나라마다 방대하며 그 접근 방식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대성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비대면 정보화 사회 속에서 인문학교육은 새로운 모색을 시도해야 한다.

과거 인문학은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해 왔으나 사회의 새로운 지향성을 제시하기에만 관심을 가졌다. 점차 빠르게 변화되기에 변화의 모습을 관찰하고 새로운 요구에 맞는 이념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인문학의 특징으로 인해 사회 밖에서만 있어왔던 인문학의 모습은 현재의 상황과 사회 현실에서 이상적이고 효

과적인 학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학문이 어떠한 논리에 의해 변화에 의해 이용되어진다는 것이 학문의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념이란 의식이 변화되고 사회가 바뀌면 같이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준 인문학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틀에 묶여 있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인문학은 쉽게 보편화되어 질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틀에서 벗어나 인문학도 보편적인 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문학교육은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제시해야 하며 미시적인 안목에서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문화적인 상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문학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시적인 안목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방식이지만 미시적으로는 자기나라 자기민족을 이해하고 접근하여 정체성을 찾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목도 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인문학자만으로 규정 할 수 없는 폭넓은 민족과 국가 구성원 모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속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길잡이로서 인문학자들의 사명감이 있으며 인문학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COVID-19로 인해 점점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정보화의 흐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오늘날 인문학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문자 텍스트를 전자 텍스트화 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정보화의 흐름 속에 전자 텍스트 된 인문학의 문헌은 인문학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문학 자료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 교육은 다선형 정보환경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선형상의 정보화 환경은 인터넷과 웨이런 환경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성과 동시 다발적인 정보화에서의 정보와 지식의 교류는 인문학이 가지는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학문을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 인문학 교육을 위해 대면 토론 방식을 취했다면 오늘날 교육은 웹상의 가상공간에서 만나 실시간의 토론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서적을 탐독하기보다 한 번의 여행이 좋듯이 타국의 학문적 업적을 이용하기 위해 자국에서 발간되지 않는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상, 역사, 인식 등을 교육하던 인문학의 기본적인 교육 방향성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사회 속에 인간의 모습을 가르치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 교육의 전환을 생각해 볼 때이다. 인문학의 근본부터 바꾸는 모험이 아닌 인문학이 고수해온 사회로부터 분리된 인문학이 아닌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에 인간의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의 의무감을 생각하는 노력과 함께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정보화 시대로 야기될 수 있는 인간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며 미시적인 안목으로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앞으로의 사회에 자국의 문화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상대적 의미의 인문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인문학은 결코 무시되거나 사장될 수 없는 학문의 기초이자 문화 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교양적 정보와 지식의 보고이다.

3. 기독교대학과 인문학교육

COVID-19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COVID-19 이전 3M 즉, 돈(Money), 시장(Market), 나(Me)를 이유로 시장에서 오직 나의 이익과 돈만을 추구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사회적 관여와 윤리적 감수성을 갖추고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뉴노멀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조한혜정, 2020: <https://programs.sbs.co.kr/sbsbiz/newnormal>). 인문학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와 자신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인문학은 인간이라는 말이 뜻하는 다양한 의미 차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인식의 추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많은 중차대한 이슈들을 제기한다. 이러한 인문학의 전형적인 사고 습관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독교세계관의 반영이 된다.

기독교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의 가치와 그것의 필요불가결함을 긍정하는 신앙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 유명한 ‘문화명령’ 속에 내포된 중요한 함의이다. 문화적 가능성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창조성과 통치권의 얼마를 각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시하는 것이다(Plantinga, 2002: 33).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부은 값비싼 향유를 담은 향아리가 이런 반응에 대한 적절한 은유를 제공하여 준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고귀한 업적과 열망을 대표하고, 우리의 손과 정신의 산물인 예술과 사상처럼 기쁨을 고취시키는 모든 것들과, 각양 좋은 선물의 원천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 인문학이 이런 좋은 것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도구로서 작용한다. 인문학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 세상의 모습을 가꾸어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획득하게 한다. 이 깊은 통찰력은 신학이 그 바탕이 되긴 하지만, 좁은 의미의 신학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교의와 예배에서만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전반에서도 실천하는 인문학과 관련이 있다(Plantinga, 2002: 207). 인문학은 기독교 교육의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문학이 다루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 받아 자아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인문학이 중요한 것은, 인간 경험의 모습과 인간 문화의 다양한 짜임에 대한 집중이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의 핵심요소들을 그토록 깊게 반향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복음 전파와 하나님께 영광을 주요 모토로 삼고 있는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세계관을 대학교육에 주입하기를 원하였기에 계몽주의로부터 내려온 지배적인 지적 풍토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다(Brint et al., 2002: 5). 과학적 자연주의를 진리추구와 진리에 대한 정의의 온당한 모델로 삼고, 신앙적 관점은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 의견의 영역으로 추방하기를 원했던 지적 경향과 씨름하여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 그 풍토는 변하여 많은 대학교육 영역에서 상대주의와 관점주의가 점차 실질적 주도권을 쥐게 됨과 아울러 진리와 의미의 표준이 객관성에서 주관적 정체성으로 옮겨감에 따라 대학에 있는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기독교대학들도 새로운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직업적인 성공과 개인적 경건을 결합하는 것 이상의 삶을 견지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분야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름 받았기에 기독교대학 교육의 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연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Plantinga, 2002: 199). 우리 인간들에 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지식을 아우르는 풍성한 지식의 짜임이 앞서 말한 기술을 보완하고 거기에 침투해 있어야 한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과 그것을 표현한 전통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문화적, 사회적 습속들을 분별하고 당대의 욕구와 이슈에 대처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사회적으로는 타인들과 복잡한 관계의 망 속에서 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Plantinga, 2002: 207-208). 기독교대학이 하나님나라의 시민을 양성하려고 한다면, 학생과 교수가 그들의 시민적, 직업적 추구의 틀이 되는 의미와 개인적, 문화적인 정체성의 근본문제와 씨름할 수 있도록 광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 교육과 연구는 그러한 광장 중 하나를 제공한다.

인문학 분야 가운데 하나인 문학은 학생들에게 인간이 다양한 문화적 형태 속에 삶의 감각을 구현하는 해석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작업을 날카롭게 행하는 해석자가 될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문학작품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타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한다. 역사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소명을 올바르게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을 형성하여 온 특정한 힘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세계에 대하여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Plantinga, 2002: 211). 이러한 인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가족, 교회, 국가, 시장과 같은 제도들이 역사 속에서 구조화한 여러 관계들에 의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문화적 표현의 형태 및 사상과 경험의 양식에 주목하고 있는 인문학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영역을 탐구하고 중요한 통찰을 판가름할 적절한 광장을 제공할 수 있다.

분석의 특정한 대상이 무엇이든지 모든 문제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전히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여야 하는가라는 궁극적 물음으로 되돌아온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은 또한 ‘나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교육하는 데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인문학은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인문학에서 기독교 관점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의제중의 하나는 종종 “신앙과 학문의 통합”(Integration Faith and Learning)이라고 불리는 접근법이다(Marsden, 1998: 13). 이 접근법은 19세기 화란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카이퍼(Abraham Kuyper)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전통의 노선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달되어 온 것이다. 기독교 관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카이퍼는 계몽주의의 과학적 자율성 이론을 주요한 공격목표로 삼았다. 그는 어떠한 학문도 순수하게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Marsden, 1998: 15). 학문은 불가피하게 일련의 근본적 가정이나 어떤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본질이다. 그러므로 카이퍼에게 기독교 연구의 과제는 근본적으로 이중적이다. 하나는 특정 학문분야의 실천이나 지식이 근거하고 있는 가정들을 드러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성경적으로 조명된 틀을 짜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과 거의 동일시되어 온 사람들은 기독교 관점을 주장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기독교 역사학자 마스덴(George M. Marsden)은 “우리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기독교적 관점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arsden, 1998: 16).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 경험의 가치를 긍정하므로 문화와 정전에 대하여 폭넓은 접근법을 취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인식은 오직 타자를 알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문적 연구의 초점이 아무리 특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문학의 궁극적 준거 틀은 모든 공동체가 공통의 인간성을 매개로 공유하고 있는 인간정체성이라는 공동관심사여야만 한다.

인문학에서 기독교 실천의 주요한 차원은 언제나 인간본성과 운명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뿌리내리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 관점의 접근은 우리 인류의 역설적 성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초청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하여 구원을 필요로 하며, 언제나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을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Neibhur, 2008: 63).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을 지니는데 든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관점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실재의 모습과 가장 잘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경적 모델은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인간 정체성을 경제적, 지적, 정치적, 심리적 구성요소 중 하나의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세속적 대안보다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더 풍성하게 설명하여 준다(Niebuhr, 2008: 217).

기독교는 핵심적으로 깊이 육화된 진리의 이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은 단순히 이성

적인 명제나 추상적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하나님은 보통 인간의 경험과 분리되어 그것에 무관심한 실체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보통 인간의 경험 속으로, 우리의 시공간 안으로, 우리 인간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규정짓는 요소들은 전적으로 인간적 현상들, 즉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부활인데, 이 부활은 사망을 패배시키고 변형시키긴 하지만 인간 존재를 시간적 지평에서 추방하지 않는다. 역사성과 인간 경험의 중요성을 긍정하지 않고선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인문학은 하나의 학문분야로서의 역할을 넘어, 개별 학문분야의 초점에 상관없이 전 교과과정에 공헌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최상의 경우에 인문학은 우리 자신과 세계를 전체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을 동반한다. 이런 전체적 입장의 강조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세계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의 빛 아래 온전한 사람을 세우도록 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역사, 예술, 문학에서 인문학이 대면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의 문제는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그것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명백하고 자명하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매우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서 내린 결론이 새로운 통찰과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과 기술은 진공상태에서 발전되지 않으며 항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도덕적 콘텍스트를 가정한(Plantinga, 2002: 225). 진정한 교육은 정보와 사고를 상황적 맥락에서 이탈된 고립된 사건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살아 있는 유산을 포착하는 것이다.

4. 인문학교육의 새로운 시도: 기독교인문학

인문학이란 인간과 사회의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 현재에 대한 냉철한 문제의식과 합리적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합당한 전망과 적절한 대안 제시라는 고유의 역할을 지닌 학문이다. 이런 본연의 역할을 오늘날의 인문학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자성과 비판이 다각적으로 제기되었다.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진단 결과, 학문 외적으로 보면 경제적 풍요와 시장적 가치 창출이 주요한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인문학의 가치가 오래 전부터 평가절하 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압축성장과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극한 상업주의의 팽배 속에서 정신과 물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정신문화가 지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퇴조해 결국 인문학 연구의 추동력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학문 내적으로 보면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인식하는 데에 인문학의 세분화된 분과학문 체계가 그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한다.² 그래서 근대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인문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늘날 인문학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인문학의 거의 모든 분과학문이 개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문학 본연의 특성 중 하나인 학제간의 연결을 통한 통합성을 상실한 데 있다.

모든 학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해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점차 학문이 세분화되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학문 분야별로 제한하고 있으며 점차 권위적이 되어 서로의 간접을 배제시킨다. 그러나 세상은 어느 하나의 학문만으로 조망하고 설명하기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 간의 통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COVID-19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제 3의 거대한 물결이다. 이로 인한 사회 전반의 탈 근대적인 요소로의 변화와 절대적, 보편적, 객관적 가치는 붕괴되고 다시금 상대적, 주관적 관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분업화 전문화로 대변되던 세분화 현상은 정보화에 의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학문분야에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학문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학문의 방향성과 분업화된 학문의 통섭을 유도한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문학의 분업화된 개별의 학문을 통합하여 인문학의 활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인문학의 부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학제간 대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지식을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최근에 자연과학과 인문학, 인문학과 사회과학간의 통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문학내에서의 학제간의 통합내지 통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다각적 통합으로서의 인문학의 통합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문학의 통합 연구를 모색하는 움직임들 중의 하나가 기독교인문학자들의 기독교인문학을 정립하려는 노력이다. 기독교인문학이란 기독교적인 관점을 인문학의 여러 분야 즉 문학, 철학, 역사학, 언어학, 종교학, 문화학, 예술학 등에 적용함으로써 인문학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자, 한편으로는 인문학의 관점을 기독교에 적용하는 것이다.

“인간성”(human nature)을 기본 원리로 하는 인문학은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 연구방법론상 무신론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가 아니며 인간 공동체의 역사에서 인간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탐구는 인간을 이해하는 근본적 지식을 제공하고 인간에 대한 탐구로서의 인문학을 이해하는 토대를 만든다(Plantinga, 2002: 208). 일반 인문학과 달리 기독교인문학에는 자비심이라는 요소가 추가된다. 일반 인문학과 달리 기독교인문학은 연

2) 이러한 주장은 1999년부터 본격화된 21C의 인문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 모색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다수의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민과 사랑, 자비의 마음을 특징으로 한다. 기독교인문학이 추구할 방향으로 ‘개인의 신앙과 교회공동체를 위한 인문학’, ‘사람을 살리는 인문학’, ‘삶을 위한 인문학’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기독교철학자 강영안은 기독교 신앙의 인식론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성격의 기독교인문학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지식의 근저에는 암묵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격적 지식이 다른 모든 지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영국의 철학자 폴라니(Michael Polanyi)의 생각을 빌어 인격적 지식론이 통합적인 학문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강영안, 2002: 110-111).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진 믿음은 지식 안에서 지식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수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지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지식에는 고유하게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인 암묵지(暗默知)와 개별적인 요소의 통합 과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폴라니는 강조한다. 인문학은 객관적 지식을 산출자의 역할이 아닌, 인간의 인격적 내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인문학은 주변 세계와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인문학은 어떤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성, 즉 인간의 기쁨과 고통, 바램과 소원, 기대와 좌절, 사랑과 증오, 선과 악 등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기인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철학과 역사, 문학과 언어, 종교와 예술을 공부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의 자기이해를 풍요롭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강영안은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앎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으로는 만족될 수 없고 인간의 인격성의 추구를 통해서만 기독교유신론에 합치하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인문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강영안, 2002: 119-120). 통합학문으로서 기독교인문학에 대한 이러한 인격주의적 접근은 전통적인 기독교세계관적 접근과 함께 기독교인문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은 기독교대학에서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걸음마 단계인 기독교인문학이 우리사회에 자리매김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인문학의 각 분과학문 체계에 따라 구획된 기독교적인 분과 학문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를 위해 먼저 인문학의 토대가 되었던 문학, 철학, 역사를 중심으로 연관성 있는 인문학 내의 학문분야와의 일대일 통합을 기독교를 모티프로 추구한 뒤 점차 그 통합의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 통합학문으로서의 기독교인문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 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기독교는 서구 인문학 형성과 이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하나님 유무에 대한 논쟁은 인문학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기독교의 영향이 사회에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문학의 연구사를 볼 때에 많은 인문학

개별 학문들이 그 방법론에 있어 서구에서 유입된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인문학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소홀히 다룰 수 없기에 인문학과 기독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불가피한 과제이며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명제 가운데 하나이다.

5. 기독교인문학을 위한 전략

오늘날 어떻게 기독교인문학을 할 것인가의 과제는 인문학에 종사하는 기독교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 있는 이 과제를 구체적인 학문원리로 제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기독교인문학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대부분 일반 학자들이 기독교를 중요하다거나 흥미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현대학문에 있어서 종교는 매우 간과되어 있다. 그러나 기독교학자는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문화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기독교학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독창적인 학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독교학자는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종교적인 경향이나 충동을 흥미 없는 것으로 무관한 것으로 또는 거짓 의식으로 생각해서 부인하지 않는다. 기독교학자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이 보지 못한 종교적인 암시와 주제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다. 인문학에서 중요시하는 인간 경험의 모습과 인간 문화의 다양한 짜임새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세계관의 핵심요소들을 깊게 반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수 및 학자들은 교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형성 효과에 대하여 의도적이어야 하며, 상호 공유하고 있는 가치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을 더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Plantinga, 2002: 225).

둘째,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도덕적인 심판과 그 연구를 규정적으로 사용함에 열려있다. 인문학은 사물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종류의 질문이나 기준이 되는 작업 이전에 관한 질문을 다룬다. 이러한 질문과 답으로부터 사회학자, 정치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사회에 적용할 내용들을 이끌어 낸다. 기독교학자는 자신들이 사는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넓게 인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인문학에 있어서 분리와 대립 그리고 해석에 대한 의심이 도덕적인 진지함을 침식시키고 있을 때에 기독교학자들은 선하고, 지혜롭고, 건설적인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 기독교 관점은 인문학의 연구대상인 인간의 정체성을 역사적, 지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구성요소 중 하나의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세속적 대안 보다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더 풍성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학자들의 작업은 공의, 평등,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일에 건설적으로 공헌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의 인간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

으며 영광과 명예로 장식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죄의 속성 그리고 인간존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최근의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문화는 깊게 왜곡되었고, 그 결과 인간 스스로 짊어진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을 연구하는 기독교학자는 성경에 충실한 인간관의 이해를 분명하게 추구하여 설명하는 중요하고 회복적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독교학자는 성경에 충실함으로 깊은 통찰력 있는 인문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학자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작업하고 관계를 맺는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기독교학자들이 공동체에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베푸는 호의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선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알게 된다.

기독교세계관 관점은 모든 인간의 가치를 긍정하므로 인문학 전반에서 보여주는 전통적 정전이나 개혁적 모델에 대해 폭 넓은 접근을 취한다. 기독교의 궁극적 근거 틀은 성별이나 계급이나 인종과 같은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공통의 인간성을 매개로 공유하고 있는 인간 정체성이라는 인문학의 보편적 관심사인 것이다.

기독교인문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제는 인문학에 종사하는 기독교학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일지 모르겠다. 기독교학자들의 기독교인문학을 위한 노력들은 물론 다양한 시각에서 볼 때 소수의 작업일 수 있으며 심지어 외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학자들이 서로 만나고 격려하며 비판적인 지지를 나눌 때에 이와 같은 공헌은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해 기독교학문 연구와 보급에 힘쓰고 있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구심점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III. 나가는 글

COVID-19로 인해 근대 이후 사회를 유지하던 시스템은 일시에 새로운 변화를 맞으며 시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이 일상에 자리하게 되었다. COVID-19를 기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에 놓일 것이며, 단순 미래가 아닌 의지미래만이 존재하는 사회에 직면할 수 있다(최재천외, 2020: 36).

COVID-19는 대학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쳐 교육환경의 변화와 수업방식 등에 비대면 수업을 위한 새로운 교수방법의 도입을 가져오게 되었다. 온택트 사회로의 진입은 학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문학은 기존의 탈학습적 방식의 시험대의 최전선이 되었다. 인문학교육은 현실을 직시하며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며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된 다양한 인문학의 탐구는

COVID-19를 경험하며 인간의 본질과 질병의 문제를 마주하며 추상적인 철학적 담론을 넘어 실존적 인문학의 범위로 확장되었다.

COVID-19로 인해 기존의 대학 구조와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어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문의 근간을 이루며 교양과정의 핵심을 차지하는 인문학에 대해 그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대학에서의 인문학교육에 대한 성찰은 기독교와 인문학의 상관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의 문제를 푸는 담론을 제시하며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고, 시대정신을 이끄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문학은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기독교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문학은 지적발달과 더불어 도덕성 함양에 강조점을 둔다. 교과목의 내용과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덕목들에는 다른 무엇보다 정직, 창의성, 공감능력, 청지기 의식, 긍휼, 정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가르치기보다는 감염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교과목의 사실적 내용을 통해서 보다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교수들이 보여주는 모범을 통하여 전이된다. 인문학의 과제 중 하나는 모든 학문분야가 어떤 식으로든지 직면하게 되는 도전, 즉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인격을 양육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문학이 지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닫혀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은 어떤 단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나 방법론에 순복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해결된 결론을 만들어내는 일도 거의 없다. 오히려 서로 다투는 해석과 접근방법이 같은 분야에서 공존하는 현상이 전형적이다. 일상생활에서처럼 각기 사물을 달리 인식하고 다른 의미표준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관찰자들마다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에서 나타나는 학문의 연구 경험과 보통사람들의 경험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사점이 있다. 둘 다 공히 주관적 평가나 종종 불완전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덕목이 필요하게 만든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명백하고 자명하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서 내린 결론이 새로운 통찰과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문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정한 몇몇 학문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문적 활동에 걸쳐 있는 이슈들을 제기하고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학 텍스트의 분석이나 문화적 구성물의 해석, 또는 문예작품의 연구 등에서뿐만 아니라 전 교과영역에 걸쳐, 많은 기본 관심사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루어야 한다. 기독교학자 및 교수들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학자이자 교수로서의 우리의 소명과, 그리고 특히 대학 및 사회 전체에 빚지고 있는 셈이다.

기독교학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원주의 및 비일관성을 주어진 것으로 오롯이 받아들이지 않

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현상을 무비판적으로 포용하지 말아야 하며,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과제는 최종적으로 더 좋은 방식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 교육목적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현시대에 효과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목표에 부합한 교육적 실천인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을 구성하는 특정요소들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에게만 독특한 것이거나, 기독교세계관에 바탕을 둔 연구가 비기독교인들의 연구와 항상 근본적으로 다른 결론을 산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은 조사의 주제 및 질문의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분석적 이론과 방법에 있어서, 연구 작업에 종종 미묘하긴 하지만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Marsden, 1998: 13-16.).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적 관점의 주요한 시금석은 그것이 다른 접근방법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변별적인 것인가 여부가 아니라, 신앙이 계시하여 주는 바에 따라 실재에 온전히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과연 진정한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기독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소명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지성과 감성의 습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학자로서 우리는 각자 특정한 학문분야의 관심, 대학의 관심, 그리고 사회의 난제들을 다루도록 부름 받았다.

인문학은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가르치는 과업을 가진 우리 모두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인문적 초점이 궁극적으로 필수적이다. 우리의 전문영역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과목내용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목적에 대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핵심적 관계는 선생과 학생간의 관계이지 선생과 가르치는 과목의 관계는 아니다. 빠르게 전문 직업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이 사실은 간과하기 쉽다. 교수는 전문분야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데만 치중하여 깊은 교육적 목적을 희생시키기 쉬운 것이다. 우리학교가 지적발달과 더불어 인성 및 도덕성 함양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지식 및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덕목들은 딱히 구별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는 직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필요한 자격증과 지식을 전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헌신된 가슴을 심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기독교대학은 교육과정을 통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성취 효과와 목적에 대하여 의도적이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상호 공유하고 있는 가치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을 더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실천하는 덕목에는 정직, 창의성, 공감능력, 청지기 의식, 공흠, 정의 그리고 사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질과 습성은 가르치기보다는 감염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교과목의 사실적 내용을 통해서 보다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교수들이 보여주는 모델링을 통하여 전이된다. 인문학의 의제는 모든 학문분야가 어떤 식으로든지 직면하게 되는 도전, 즉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인격을 양육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문학에서 기독교적 실천의 주요한 차원은 언제나 인간본성과 운명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뿌리내리고 있다(Summers, 1998: 217). 학문에 있어 기독교적 접근은 우리 인류의 역설적 성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초청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하여 구원을 필요로 하며, 언제나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을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지니는데 든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관점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실재의 모습과 가장 잘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경적 모델은,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인간 정체성을 경제적, 지적, 정치적, 심리적 구성요소 중 하나의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세속적 대안보다,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풍성하게 설명하여 준다.

인문학은 교수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직업적 정체성과 실천을 늘 점검하도록 초청한다. 사실상 모든 인문학의 하나의 특징은 끝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문분야에서는 어떤 단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나 방법론에 순복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해결된 결론을 만들어내는 일도 거의 없다. 오히려 서로 다투는 해석과 접근방법이 같은 분야에서 공존하는 현상이 전형적이다. 일상생활에서처럼 각기 사물을 달리 인식하고 다른 의미표준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관찰자들마다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에서 학자적 실천과 보통사람들의 경험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사점이 있다. 양쪽 공히 주관적 평가나 종종 불안정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문 직업가로서의 겸손의 덕목을 되새기게끔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이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자기들의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과 통찰력은 대학교육 일반의 건강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병철 역(2020).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Quammen, D. (2012). *Spillover: Animal Infections and the Next Human Pandemic*. 서울: 꿈꿀자유.
- [Kang, B. C.(2020). *Spillover: Animal Infections and the Next Human Pandemic*. Seoul: Kkumkkuljayu. Trans. Quammen, D.(2012). *Spillover: Animal Infections and the Next Human Pandemic*. New York: W. W. Norton]
- 강영안 (2002). **인간의 얼굴을 한 지식 - 인문학의 철학을 위하여**. 서울: 소나무.
- [Kang, Y.A.(2002). *Knowledge with a Human Face-For the Philosophy of the Humanities*. Seoul: Sonamu.]
- 김월희 (2020). “멀티택트(multitact)시대와 교육장 재구성의 방향”,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II)**, 한국연구재단. 10-22.
- [Kim, W. H. et al.(2020). *Humanities Introspection on the COVID-19 Phenomenon(II)*.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신혜경 (2020). “코로나 위기로 짚트는 새로운 삶의 철학,”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II)**, 한국연구재단, 36-48.
- [Shin, H. K. et al.(2020). *Humanities Introspection on the COVID-19 Phenomenon(II)*.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안상헌 (2012).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공부법**. 서울: 북포스.
- [Ahn. S. H.(2012). *How to Study the Humanities to Develop Insight*. Seoul: Bookforce.]
- 이영석 역(2020).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Harrison, M. (2012). *Contagion: How Commerce Has Spread Disease*. 서울: 푸른역사.
- [Lee, Y. S.(2020). *Contagion: How Commerce Has Spread Disease*. Seoul: Pureunyoogsa. Trans. Harrison, M. (2012). *Contagion: How Commerce Has Spread Diseas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장문석 외(2020).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I)**. 한국연구재단.
- [Chang, M.S. et al.(2020). *Humanities Reflection on the COVID-19 Phenomena(I)*.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 최재천 외 (2020).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셜.
- [Choi, J. C. et al (2020). *Corona Sapiens*. Seoul: Influential.]
- Aronowitz, S. (2000). *The Knowledge Factory: Dismantling the Corporate University and Creating True Higher Learning*. Boston: Beacon Press.

- Brint, S.(Ed.) (2002). *The Future of the City of Intellect*. Redwoo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sden, G .E. (1998). “What Difference Might Christian Perspectives Make?” in Wells, Ronald(Ed.) (1998). *History and the Christian Historia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1-22.
- Niebuhr, R. (2008).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lantinga Jr., C. (2002). *Engaging God’s World: A Reformed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Readings, B. (1997). *The University in Rui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ummers, J. (1998). “Teaching History, the Gospel, and the Postmodern Self” in Wells, R.(Ed.) (1998). *History and the Christian Historia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5-219.
- 다른백년 홈페이지 “신코로나 역병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 <http://thetomorrow.kr/archives/12093> (2020.5.29.). (검색일 2021. 2. 17)
- 조한혜정,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SBS-CNBC <https://programs.sbs.co.kr/sbsbiz/newnormal/vods/65502> (2020.7.15.). (검색일 2021. 6. 1.)
- 한겨레 “포스트코로나 정신건강은?...고립감 누적 자살 급증 안전망 쪼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8704.html> (2021.6.9.) (검색일 2021. 6. 10)
- e.motion Magazine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Untact)를 넘어선 온택트(Ontact)’시대를 이끈다”<https://www.emotion.co.kr/magazine/15/> (2020.9.15.) (검색일 2021. 6. 3)
- MIT Visualizing Cultures, <https://visualizingcultures.mit.edu/home/index.html>. (검색일 2021. 6.1)
- Sharfuddin, S. (2020). “The world after Covid-19”, <https://doi.org/10.1080/00358533.2020.1760498>, 247-257 (2020.6.17.). (검색일 2021. 2. 15)

COVID-19와 인문학교육*

COVID-19 and Education for Humanities

신현호 (백석대학교)

ABSTRACT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으며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대학교육에서 비대면 수업이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학생과 교수간의 친밀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학습역량이나 만족도도 저하되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뉴노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과 언택트 현상의 확대이다. 교회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기독교대학과 그 공동체에 속한 교수들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 대학 내 언택트 문화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대학교육의 변화와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다루고 이어 기독교 관점에서 인문학을 조망한 뒤 기독교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취해야 할 방안 및 태도에 대해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안과 인문학을 담당하는 기독교수 및 학자들이 인문학교육 활성화에 대한 활발하고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코로나-19, 교육, 인문학, 사명, 기독교수